

건축하는 디자이너 디터람스, Par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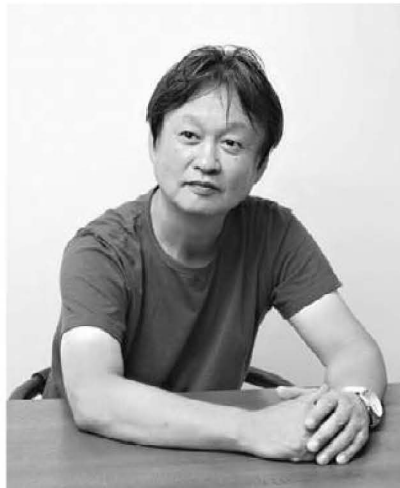
Dieter Rams, Designer als Architekt

글. 김성환 Kim, Sungwhan

KSP Jürgen Engel Architekten GmbH (München)

일본의 디자이너 나오토 후카사와(NaotoFukasawa)는 1999년 MUJI와의 첫 콜라보 작품으로 벽에 걸어 작동하는 CD-Player를 발표한다. 지금도 그때와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이 제품은 16년동안 나오토 후카사와가 MUJI와 작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CD-Player를 재생하는 순간 CD는 돌아가기 시작하고, 음악은 흘러나온다. 이 순차적인 움직임을 나오토 후카사와는 부엌에 있는 환풍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선을 잡아당기면 전기 동력 스위치가 켜져 팬이 작동되는 순간을 CD-Player에 대입한 것이었다. MUJI는 이 아이디어에 매료되어 작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한다. 여기서 나오토 후카사와는 자신 스스로 디터람스의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림 1) Naoto Fukasawa, Muji CD Player 1999



“CD-Player를 만들어 내기까지, 많은 모서리와 각을 다듬는 시도를 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 가지는 힘, 즉 단순화되고 밀리미터 영역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간결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지요. 디자이너로서는 정점을 보일때까지 작은 모서리와 각을 다듬어 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은 정확도와의 싸움이지요. 저는 이것을 익히는 순간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디터람스는 흔히 자주 했던 말이 있었다.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이란, 생각을 이미지화 하여 듣고자 하는 이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그림을 주고받는 과정을 반복하여 거친 후,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오류를 거듭한다. 완벽한 정점에 다다른 순간에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그 생각을 실제로 뒷받침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기술적인 부분, 즉 작은 곡률, 각도, 재료 그리고 기술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디테일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객체와 주체, 수요자와 생산품의 틈을 이어준다.

1955년부터 현재까지 약 500여개의 BRAUN사의 생산품을 담당한 그였지만, 스스로 이야기 하길 그는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볼 수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수많은 제품이 그의 눈앞으로 거쳐갈 때마다 그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꼼꼼하게 보았다. 한 부분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디테일과 연결 될 경우, 무조건 그의 눈을 통해 수정과 보완이 진행됐다. 기술과 디자인을 동시에 이끌어 갈 힘은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과 연결되어야 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는 스스로 멈춰 있지 않고 진보되는 기술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졌다.

그가 BRAUN사에서 그의 경력을 시작한 1940년대 후반에는 Hi-Fi라는 기술이 오디오 분야에서 등장하였다. 음향 기술을 규격화하여 듣는 사람에게 가장 안정적인 주파수를 제



그림 2) Dieter Rams, Regalsystem 606 in London 1960

공하고자 함이 서비스의 목적이었다. 이미 1950년대 후반에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이 기술이 시장에 등장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BRAUN사가 이 분야에서 선구자가 된다. 1962년 이후, 약 10여년 동안 15여개의 모델을 출시하였다. 이 기간에 제공된 BRAUN Hi-Fi System은 높은 수준의 음질이 출력되고 각자의 음질이 동일한 바탕을 갖고 있어야 했다. 그 목적은 한 소비자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구매 한 후, 시간이 지나 구매의사와 능력에 따라 추가되는 사양에 대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제공되어야 한 것이다. 단순한 현재의 판매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영향력을 시장에 가능성을 만든 것이다. 이 가능성은 기술자에게 거대한 도전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트랜지스터가 너무나도 비쌌던 것이었다. 높은 수준의 음질이 제공되면서도 단순화된 포맷을 제공하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기엔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



그림 3) Dieter Rams, the modulized furniture

그러나 회사 차원에서는 이 시스템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나의 규격화된 기술이 시대를 거쳐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장기간 회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브라운 형제의 취미 생활도 사실 한몫을 했다. 재즈음악을 유난



그림 4) Dieter Rams, Radio RT 20 1961

히도 좋아했던 형제는 콘서트나 연주되는 곡을 꾸준히 녹음하고 프로그램을 Hi-Fi 수준의 음원으로 소장하기를 원했다. 이 열정은 브라운 형제들을 자극하였고, 당시 디터람스와 그의 팀들이 자유롭게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Hi-Fi System의 모듈을 이용한 디자인은 확실하게 디터람스만의 영역이었다. 그는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구회사(Vitsœ)*를 통해 이 모듈을 사용한 가구들을 이미 설계하였으며, 시스템 원칙이 가지고 있는 그 유동성은 홈 오디오 시스템에 충분히 적합하였다.

예를 들면, 1961년 생산된 탁상라디오 RT20은 UKW 및 중저파 수신을 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였다. 단순한 라디오의 기능을 넘어서 여러 가구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장에서 성공한 큰 이유중에 하나였다. 섬세한 미를 부각하면서도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기능을 담아, SK4 휴대용 디스크 플레이어가 성공한 것과 같이 기술과 디자인이 조화가 된 것이다. 이 제품은 현재까지도 많은 독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당시 시절을 회상하게 한다. 중고가격으로도 현재 400유로 이상을 호가하는 것을 보면 그 인기는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의 가지는 무연탄색(Anthrazit, RAL7016)과 하얀색 모듈화된 버튼은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표면이 가지는 재질감이 필자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이유다.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기술력, 어느 공간에도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 오랜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디자인, 이러한 것들이 디자이너에게 직업적인 뿌듯함을 가져다 준다.

다음호에서 디터람스와 Vitsœ의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